

⑬ 기본형과 이에 따른 활용

㉠ 가없다(가엤다○), ㉡ 서럽다(섣다○), 여쭙다(여쭈다○), 시리다(시렵다×), 졸리다(졸립다×)

- 예) • 그 사람은 가엤은(가여운○) 사람이다. **T 1-2271-1**
- 나의 서러운(섣은○, 섣은×) 사연을 들어 보오.
 - 할아버지께 그것을 여쭙(여쭈어○) 보았다.
 - 찬물을 마셨더니 이가 시렸다. (시려웠다×)
 - * '찬 것 따위가 달아 통증이 있다.'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시리다'이다. 이 '시리다'를 '*시렵다'로 착각하여 '*시려워', '*시려웠다'처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 몹시 졸린다. (졸리운다×)
 - * '*졸리워', '*졸리우니', '*졸리운다'처럼 활용하지 못하므로 이 말의 원 형태인 '*졸립다'라는 어형은 존재할 수 없다.

㉢ 꼬느다, 다다르다, 추스르다(추스리다×, 추슬르다×) **M 1-2271-2**

- 예) • 이번 사태를 잘 추스르지(추슬르지×, 추슬리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 * '추스르다'는 '일이나 생각 등을 수습하여 처리하다', '몸을 가누어 움직이거나, 추어올려 다루다'는 뜻의 말
 - 그는 담배를 꼬나물고(꼬아물고×) 일어섰다.
 - * '잠그+어야 → 잠가야'가 되듯이, '꼬느+아 → 꼬냐'가 된다.
 - 거기에 다다랐으(다달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 '다다르다'가 기본형이므로 '다다르+어서, 다다르+어도, 다다르+었다, 다다르+었으되'는 '다다라서, 다다라도, 다다랐다, 다다랐으되'처럼 활용한다.

㉤ 파이다, 차이다, 개다

- 예) • 가슴이 너무 파인(팬○, 패인×) 옷은 보기에 좋지 않다.
- * '파이다'는 '파다'의 피동형인데 이를 '*패인, *패었다'처럼 쓰면 이중 피동의 형태가 된다.
 - 낙엽이 발길에 차인다. (챠다○, 채인다×)
 - * '차이다'는 '차다'의 피동형인데, 이를 '*채인다, *채었다'처럼 쓰면 이중 피동의 형태가 된다.
 - 활짝 개(개인×) 날씨가 계속되었다.
 - * '흐리거나 갇은 날씨가 맑아지다'는 뜻의 말은 '개다'란 어형만 인정된다. 이를 '*개이다', '*개어지다'처럼 써서는 안 된다.

⑭ 어미 형태에 주의해야 할 말

㉠ 종결의 '-아/-어', '-아라/-어라'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또는 말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로는 '-아/-어'를 사용한다. 어간의 끝모음이 'ㄱ, ㄴ'일 때는 '-아라'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라'를 쓴다.

- 예) • 그것은 무척 재미있는 것 같아. (갈애×)
- 저 바위는 꼭 거북 같아. (갈애요×)
 - 저 개그는 정말 재미있는 게 맞아. (맞어×)
 - 밖에 나와서 바람을 좀 쐬. (씩×)
 -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뱉아라×)
 - 그것을 본떠서 **㉡**(본따서×) 했다.

㉢ '-르는지(-르런지×, -르른지×), -고자(-고저×), -기에(-길래○, -ㄴ게×)'

- 예) •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는지(있을런지×, 있을른지×) 모르겠어.
- * 여기서 '-르는지'는 행동 주체의 의지나 추측, 가능성 여부를 묻는 뜻의 의미가 강하다.
 - 선생의 연구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드리고저×) 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 소망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고저'(×)가 아니라 '-고자'(○)이다.
 - 자네가 아프다고 하기에(하길래○, 한게×)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
 - *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는 '-기에'가 옳다.

㉠ '가없다'는 '가없어, 가없으니'처럼 규칙 활용하는 반면에 '가엤다'는 '가여워, 가여우니'처럼 불규칙 활용한다.

㉡ 용언 중, 우리말에서 '르' 앞에 받침 'ㄴ'이 있는 말은 '들르다' 하나밖에 없다. '추스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인 까닭에 뒤에 모음이 연결될 때는 '*추슬러'가 아니라 '추슬르'라 해야 한다.

㉢ '모범으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라', '이미 있는 사물을 본으로 삼아 그와 같이 만들다'는 뜻의 말은 '본뜨다'이지 '본따다'(×)가 아니다. 여기서 '본(本)'은 용언과 결합한 명사이고, 어미가 활용하는 용언은 '뜨다'만이므로 '본'과는 상관없이 '뜨다'만을 활용해서 '본뜨'로 써야 한다.

확인 문제

7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에 적절한 것은?

- ① 그렇게 졸리우면 잠시 쉬었다 해라.
- ② 그때 그는 담배를 꼬아물고 일어섰다.
- ③ 나는 드디어 원하던 목표에 달달았다.
- ④ 이번 일을 잘 추슬러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라.

8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① 비로 인해 땅이 깊이 꽤었다.
- ② 활짝 개인 날씨가 보니 기분이 상쾌하다.
- ③ 나는 그 사람을 본따서 그 일을 시작했다.
- ④ 빨리 나와서 바람을 좀 쐬.

9 밑줄 친 어미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① 사랑이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병을 앓는 건지 모르겠다.
- ② 내가 이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 ③ 음식이 남지 않게끔 조금씩 덜어서 먹어라.
- ④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3 틀리기 쉬운 표기

(1) 잘못 알고 쓰는 어구

① 관용적인 어구

- 예) • 아이들이 커다란 종이에 그림을 괴발개발^①(개발새발○, 개발쇠발×) 그렸다.
 * '괴발개발'은 '고양이와 개의 발자국'이란 말로, '글씨를 이리저리 함부로 갈겨 써 놓은 모양'을 뜻한다.
- 몸이 아플 때에 대증 요법(대증 요법×)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 '대증 요법(對症療法)'이란 '병의 근원과는 관계없이' 병의 증세에 따라 적절히 다스리는 치료법'을 의미한다.
- 허 생원과 나귀는 동고동락(동거동락×)하는 관계였다.
 * '동고동락(同苦同樂)'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이라는 말이다.
- 미주알고주알^②(메주알고주알×) 그렇게 다 고해 바친단 말이나.
 * '미주알'은 '동구멍을 이루고 있는 창자의 끝 부분'을, '고주알'은 이에 맞추어 뜻없이 붙인 말이다. '미주알고주알'은 '아주 하찮은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 방방곡곡(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 '방방곡곡(坊坊曲曲)'이란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한 모든 곳'을 뜻한다.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사주단지(사주단지×)를 보내왔다.
 * '사주단지(四柱單子)'란 '정혼한 뒤,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적어 신부 집에 보내는 간지(籤紙)'를 뜻한다.
- 그 연예인은 성대모사(성대모사×)에 능하여 인기를 끌었다.
 * '성대모사(聲帶模寫)'란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짐승의 울음 따위를 흉내 내는 일'을 말한다.
- 쇠털(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무얼 그리 서두르십니까?
 * '쇠털같이'는 '많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고, '새털같이'는 '가볍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 쉬파리(쇠파리×) 꿇듯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었다.
 * '쉬파리'란 '동파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쇠파리'는 '소나 말의 등에 붙어 있는 파리'를 가리킨다. '쉬파리 꿇듯'은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모여 있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 삼촌은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아연실색×)하였다.
 * '아연실색(嗟然失色)'이란 '몹시 놀라서 얼굴빛이 변함'을 뜻하는 말이다.
- 남의 돈을 때 먹고 아반도주(아밤도주×)하는 이들은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없다.
 * '아반(夜半)'이란 '밤의 중간 무렵인 자시(子時), 즉 한밤중'을 뜻한다. '아반도주(夜半逃走)'란 '남의 돈을 피하여 밤에 몰래 달아남'이란 말로, '야간도주(夜間逃走)'라고도 한다.
- 이것이야말로 양수겸장(양수겸장×)이 아니겠습니까?
 * '양수겸장(兩手兼將)'이란 '장기에서, 한 수로써 두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르는 일'을 나타낸다.
- 오곡백과^③(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었다.
 * '오곡백과(五穀百果)'는 '온갖 곡식과 과일'을 말한다.
- 전철이 만원이어서 움짱달쌈(곰짜달쌈○, 움짱달쌈×, 곰짜달쌈×) 할 수 없었다.
 * '움짱달쌈', '곰짜달쌈'은 '몸을 겨우 움직이려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 어제가 제 선친의 삼우제(삼오제×)였습니다.
 * '삼우제(三虞祭)'는 '죽은 지 세 번째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운옹의 묘(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지요.
 * '운옹(運用)의 묘'란 '적당히 부리어 쓰는 묘미'를 의미한다.
- 절체절명(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 '절체절명(絕體絕命)'이란 '몸동아리가 잘리고 목숨이 끊어질 상황' 즉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빗대는 말이다.
- 나는 어렸을 적에 형과 티격태격^④(티각태각×) 다투었다.
 * '티격태격'은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벌어져 이리저리러나 따지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 형제간의 싸움으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풍지박산×)이 되었다.
 * '풍비박산(風飛雹散)'은 '바람에 흩날리고 우박이 이리저리 흩어짐'이라는 말로, '사방으로 날아 흩어져 산산조각이 남'이란 뜻이다.
- 그는 더 이상 혈혈단신(홀홀단신×)이 아니다.
 * '혈혈단신(孑孓單身)'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을 의미하는 말이다.

① '개소리괴소리'는 '조리 없이 아무렇게나 지껄여 대는 말'을 욕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괴발개발', '개발새발'처럼 '글씨를 함부로 휘갈겨 써 놓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끼적끼적'이 있다. 여기서 '끼적거리다', '끼적대다'는 말도 연결이 된다. 이를 '괴적대다(○), 괴적거리다(○), 괴적괴적(○)'처럼 쓰는 것도 표준어로 인정한다.

② '미주알고주알'과 비슷한 말로 '시시콜콜히', '밀두리כות두리', '옴니암니', '암니옴니' 등이 있다.

③ '백화(百花)'가 만발하는 때는 봄이요, '오곡'과 '백과(百果)'가 무르익는 때는 가을이다.

④ 이와 연관된 말로 '티격나다'가 있다. '티격나다'는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벌어져 말썽이 생기다'는 뜻의 말이다.

확인 문제

1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사용이 알맞은 것은?

- ① 그가 식술을 이끌고 아반도주를 한 지가 반 년쯤 되었다.
- ② 그렇게 형제간에 티각태각 다투면 어떡하니?
- ③ 하나 남은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니, 그녀는 정말 홀홀단신이 되었다.
- ④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2 밑줄 친 말이 옳게 쓰인 것은?

2005 노동부 · 선관위 9급

- ① 그는 6·25 때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지수성가를 하였다.
- ② 어제 밤에 신랑이 혼자서 사주단지하고 함을 가져왔다.
- ③ 내일 산수갑산을 간다 하더라도 제 할 일을 다해야지.
- ④ 전쟁이 나자 대지주였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①② ①④

① 성질이 급한 게는 환경이 바뀌면 흥분하여 입에 거품을 내뿜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② '손사래'는 '어떤 말이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조롱하라고 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일'을 가리키는 말

③ '쫄쫄하다'도 이와 같은 말이다. 예전에는 '쫄쫄하다'가 '피륙의 발 따위가 잘고 굵다'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이런 뜻이 거의 다 사라지고 '소갈머리가 좁고 인색하다'는 의미로만 쓰인다. 그러나 흔히 쓰는 '쫄잔하다'는 올바른 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기지개를 켜다', '기지개를 펴다' 둘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올바른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여기서 '행하다'는 '행뎡그렇하다'와 같은 말로 '속이 비고 넓지만 하여 매우 허전하다'라는 의미이다. '지체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가는 모양'을 가리킬 때 *행하니 갔다 오너라'처럼 쓰나 여기서 '행하니'는 '황허케', '황하니'의 잘못된 말이다. 이때 '황허케'는 '황하니'의 예스러운 표현이다.

확인 문제

5 맞춤법에 오류가 없는 것은?

2007 법원직

- ① 뒤편 마련에는 적립식 펀드가 인기?
- ② 관리는 신선노름, 서민은 주름살
- ③ 증권사들 1월 장미빛 전망 빗나가
- ④ 은행, 부자에겐 후하고 빈자에겐 켜켜해.

6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잘못 쓰인 것은?

2005 노동부 · 선관위 9급

- ① 이 참외 통털어서 얼마에 주실래요?
- ② 그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했다.
- ③ 우리 마누라 음식 솜씨가 엔간해야 사람들을 부르지.
- ④ 우리 팀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돌격해 갔다.

㉠ 9 ㉡ 9

④ 모음에 주의해야 할 것

㉠ 'ㅞ'와 'ㅟ'에 주의할 것 M 1-2276-1

- 예) • 입에다가 게거품(개거품)을 물고 뎡뎡했다.
- 선생님은 교실 저편의 걸레(겔레)를 가져오라 하셨다.
 - 나는 나그네(나그네)처럼 전국을 유람하고 싶다.
 - 원 녀석, 녀스레(녀스래)를 떨기는.
 - * '녀스레'는 '수다스럽게 떠벌려 놓은 말이나 짓'을 뜻한다.
 - 하늘에 몽게구름(몽개구름)이 피어올랐다.
 - 그는 손사래(손사래)를 치다가 잔을 받았다.
 - 여드레(여드래)만에 그 일을 마쳤다.
 - 덩치는 큰 애가 생각하는 것이 왜 그리 켜켜하니? (켜켜하니)
 - 산과 들에 짙레꽃(짙래꽃)이 만발해 있었다.
 - 그 남자는 마음에 켜기는(켜기는) 것이 있는지 머쓱해하는 표정이었다.
 - 다시 기지개(기지개)를 폈다.
 - 뜰개질(뜰개질)과 뜰개질(뜰개질)은 다른 말이다.
 - * '뜰개질'은 '털실 따위로, 양말, 옷, 장갑 등을 뜨는 일'을, '뜰개질'은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을 의미한다.
 - 시위할 때 돌맹이(돌맹이)를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
 - 나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술래잡기(술래잡기)를 많이 했다.
 - 선수들을 행가래(행가래) 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휘둥그레졌다)

㉡ 기타 모음에 주의할 것

- 예) • 거드름(거드름)을 피우는 그 친구가 요즘은 거추장스럽다. (거치장스럽다)
- 건넌목(건넌목)을 건너는(건느는) 사람들은 항상 께념(궤념)해야 할 것이 있다.
 - 그 아저씨는 팽과리(팽가리)를 아주 잘 친다.
 - 수학여행 기념으로 사온 돌하르방(돌하루방)이 방 안에 똥굴어져(똥굴어져) 있었다.
 - 매사를 두루뭉술하게(두리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 * '두루뭉술하다'는 '모나지도 동글지도 아니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말이다.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말이나 행동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놀림조로 '두루뭉수리'라고 한다.
 - 그런 땡추(땡추) 때문에 섣란한 승려들이 우스갯거리가 된다.
 - 그 물건의 밀동(밀동)을 보아라.
 - * '긴 물건의 맨 아래동아리'를 나타내는 말은 '밀동'이다.
 -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소꿉장난(소꿉장난)을 하고 있니?
 - 친구의 부탁을 아멸치게(아멸치게, 아멸하게) 거절할 정도로 나는 매몰차지 못하다.
 - 어여쁜 여성 주위를 어슬렁거리(어슬렁거리)는 영금한(영금한) 녀석 같으니.
 - 정답이 무엇인지 정말 아리송하기만(아리송하기만) 했다.
 - 애구머니(나)애구머니(나), 이게 뭐야?
 - 왜 그렇게 자주 귀찮게 치근거리니? (추근거리니, 치근덕거리니)
 - * '치근거리다', '치근대다', '근대다', '추근거리다', '추근대다' 모두 같은 말이다.
 - 어른도 몰라보는 호래자식(후래자식, 호로자식) 아니야?
 -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켜하였다. (헐하였다, 헐하였다)
 - 형제간에 다투는 모습은 참 불쌍사납더라. (불쌍사납더라)
 - * '남의 눈에 띄이는 모양이나 태도'를 '불쌍'이라 하는데 여기에 '사납다'가 결합된 '불쌍사납다'는 '체면이나 예의를 차리지 않아 보기에 언짢다'는 말이다.
 - 연거꾸(연거꾸), 하마터면(하마터면), 통틀어(통틀어)
 - * '술을 거꾸 석 잔을 마셨다'와 같이 '거꾸'가 쓰이므로 '연거꾸'가 옳다. '있는 대로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틀다'인데, 이는 '통틀어', '통틀면' 정도의 활용을 보인다.

⑤ 받침에 주의해야 할 것

- 예) • 만삭이라서 몸을 굴닐기(굴닐기×)가 쉽지 않다.
 * '몸을 구부렸다 일으켰다 하다.'는 뜻의 말은 '굴닐다'라 표기한다.
- 그 집 형제들은 모두 క్క다리([㉠]క్క다리×, 장다리×)야.
 * '키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은 'క్క다리, 키다리'이다. '장다리'는 '무와 배추 따위의 꽃줄기'를 뜻하는 말로 이와는 다른 말이다.
- 그렇게 곰수([㉡]곰수×)를 쓰기 좋아하면 결국 사업에 실패할 것이다.
 * '찌뻐한 수단이나 방법', '아주 낮은 수'는 '곰수'라 표기한다.
- 그는 오늘도 도박에서 끗발([㉢]끗발×)이 세다.
 * '화투나 투전과 같은 노름 따위에서 셈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끗'이고, 이에 맞추어, '노름에서 좋은 낱수가 연하여 나오는 기세'는 '끗발'이라 표기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어서 갚으라고 뉘달하게(뉘달하게×) 마련이다.
 * '마구 몰아대어 뉘아세움'을 의미하는 말은 '뉘달'이라 표기한다.
- 도련님(도령님×) 어서 오십시오.
 * '종가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은 '도령(道令)'인데, 이 '도령'의 높임말은 '*도령님'이 아니라 '도련님'이 올바른 말이다.
- 단박에(담박에×) 나는 그것을 먹어 치웠다.
 * '단박'은 '그 자리에서 바로'의 뜻을 지닌 명사로 대개 '단박에'의 형태로 쓰인다.
- 씨름 선수의 지루한 살바(삿바×) 싸움은 관중들을 짜증나게 한다.
 * '아랫배와 두 허벅다리가 이어진 여름', '두 다리의 사이'를 '살'이라 한다.
- 결국 사람은 한 움큼(움큼×)의 흙으로 돌아간다.
 * '움키다'에서 나온 말이므로 '움큼'이라 표기한다.

⑥ 어원에 주의해야 할 것

- 예) • 별안간(瞥眼間, 벼란간×) 베개(베개×)를 다 베고 자니 웬일이니?
 * '별안간'은 한자어대로 적는다. 또한 '베개'는 '베다'에서 나온 말이므로 '*베개'라 쓰지 않는다.
- 참으로 오랫만에(오랫만에×) 이렇게 같이 점심을 하게 되었네그려.
 * '오래간만'에서 온 말이므로, '오랫만'이라 쓴다.
- 저는 오랫동안(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오랫동안'은 '오래'와 '동안'의 합성어로 사이사잇이 들어갈 조건이므로 '오랫동안'이라 쓴다.
- 야, 인마(임마×) 너는 매사가 왜 그러니?
 * '인마'는 '이놈아'의 준말이므로 '*임마'라 표기하지 않는다.[㉣]
- 그 병원은 서울의 엔간한([㉤]웬간한×) 병원보다도 낫다.

❖ '금세'가 '바로 지금'의 의미로 쓰이면 '속시에'가 준 말이므로 '금세'라 표기하나 '물건의 시세나 값'을 의미하면 '금새'라 쓴다.

- 예) • 그는 금세 떠났다.
 • 요즘을 배후 한 포기의 금새가 얼마나 갑니까?

⑦ 문법성에 주의해야 할 것 1-2277-1

- 예) 예부터(예부터×) 전해 오는 이 물건은 무척 예스러운(옛스러운×) 느낌이 든다.
 * '예'는 명사이나, '옛'은 관형사이다. 관형사 다음에는 조사가 올 수 없다. 또한 '-스럽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까닭에 사이사잇을 쓸 수 없다.

⑧ 모음조화와 연관지어 주의해야 할 것

- 예) • 온몸을 바둥거리며(바둥거리며○, 바둥거리며○, 바둥거리며×) 허우적대는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다.
 * '바둥바둥', '바둥바둥', '바둥거리다', '바둥거리다'처럼 모음조화가 지켜진 말이 옳은 표기이다. '바둥바둥', '바둥거리다' 등은 모음조화에 어긋난 말이나 2011년 8월 31일부터 올바른 표기로 인정하는 말이다.
- 그 둘은 만나기만 하면 아웅다웅(아웅다웅○) 다툰다.
- 토끼가 강충강충(강충강충○, 강충강충×) 뛰어가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 오두방정(오두방정×)을 떨더니, 결국 일이 그렇게 됐군.
 * '오두방정'은 '몹시 방정맞은 행동'을 의미한다.
- 이웃과 오순도순(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 아니니?

① '키가 작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은 '작다리'이다.

② '곰수'는 '연의 가운데 구멍 밑의 부분'을 뜻하는 말로 '곰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③ '48장으로 된 일본식 딱지놀이'를 '화투(×)라고 하는 예가 많으나 '화투(花鬪)가 올바른 말이다. 이는 '꽃들의 싸움'이란 뜻이다. 이 화투 놀이에서 나온 말로 '파토가 났다(×)는 말을 흔히 쓰나 이는 '파투(破鬪)가 났다가 올바른 말이다. 이는 '승부가 깨졌다'는 의미이다.

④ '이 녀석아'를 '인석아'로 줄여 쓰는 것도 이런 원리이다.

⑤ '표준이나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깝다'는 말로 '어연간하다'가 있는데, 이를 줄인 말이 '엔간하다'이다. 여기서 '엔간히', '엔간해서' 등의 어형이 나왔다.

- 예) • 그는 엔간히(웬간히×) 술을 마시는 취하지 않는다.
 • 그 사람은 엔간해서(웬간해서×) 돈을 갚지 않을 텐데.

확인 문제

7 다음 중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놀다 왔다.
- ②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산봉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 ③ 구레나룻을 기른 사람은 예술가의 분위기가 풍긴다.
- ④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보니 봄이 온 것을 알겠구나.
- ⑤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가게부를 쓰신다.

8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사용이 올바른 것은? 2008 법원직

- ① 설렁탕에는 깎두기를 곁들여 먹어야 제격이다.
- ② 그녀는 오자마자 금세 떠났다.
- ③ 내 노래로 분위기를 절정에 다달았다.
- ④ 이번에 나온 자동차는 절집만 우리 것일 뿐 대부분 외제이다.

(2) 잘못된 어휘 선택 M 1-2278-1

- 예) • 내 할머니께서는 귀머거리(귀머거리×) 그러신지 가끔 말을 못 알아 들으시다.
- 눈두덩(눈두덩이×)이 파랗게 멍들었다.
*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은 '눈두덩'이지 *'눈두덩이'가 아니다.
- 오해받기 십상이군. (십상이군×)
* '十常八九'의 준말로,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말은 '십상'이다. 이 말은 부사로도 쓰여서 '아마', '거의 예외 없이'라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①
- 내일은 단출하게(단출하게×) 옷을 입고 오너라.
* '단출하다'는 '식구가 적거나 옷차림이 간편하다'는 뜻의 말이다.
- 내로라하는(내노라하는×) 장사들이 모래판에서 힘을 겨루었다.
* '내로라하다'는 '바로 나로다.'하고 자신하다는 말로서,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뜻의 말이다.
- 나는 그것이 긴가민가하네. (긴가민가하네×)
* '긴가민가하다'는 '其然가 未然가'의 준말로 아리송할 때에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하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 술을 많이 마셨으나 정신은 맨송맨송(맨송맨송○, 맨송맨송○, 맨송맨송×) 뚜렷했다.
* '술을 마시고도 취하지 아니하여 정신이 말짱한 모양', '일거리가 없거나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어 심심하고 멍멍한 모양',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에 털이 없어서 반반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맨송맨송', '맨송맨송', '맨송맨송'이다.
- 폭풍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 '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들다.'의 뜻을 지닌 말은 '수그러들다'이다. *'사그러들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가 아니다. '삭아서 없어지다.'의 뜻으로 쓰이는 '사그러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어휘에 유추하여 잘못 쓰인 말로 보인다.
- 나더러(날더러×) 그 일을 하라는데 난들(넌들×) 할 수 있겠니?
* '-더러'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로, '나더러', '너더러', '누구더러'처럼 사용한다. '-나들', '-인들'은 '-라고 할지라도'의 의미를 지닌 말로 '난들', '넌들', '사람인들'처럼 사용한다.
- 나를 너무 괄시(갈세×)하지 마.
* '헐(갈)'은 '푸대접하다'의 뜻으로 '-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 그는 꺼병이②(꺼병이×)처럼 짜임새가 없고 엉성하다.
* '꺼병이'는 '평병아리'가 줄어서 된 말로 '평의 어린 새끼'를 뜻하며, '겉모양이 짜임새가 없고 엉성하게 생긴 사람'을 빗대는 말로도 쓰인다. 여기서 '허우대는 크나 짜이지 아니하고 엉성하다'는 뜻으로 '꺼병하다'는 말을 파생해서 쓰고 있다.
- 그곳은 도떼기(돗떼기×) 시장처럼 시끌벅적했다.
* '물건을 합쳐 흥정하거나 물건을 한꺼번에 여러 죽씩 팔아넘기는 것'을 '도떼기'라 하는데 '도매로 떼는 것'이라는 뜻의 말로 보면 된다.
- 웬지 저 선수는 뒷심(뒤티심×)이 약한 것 같아.
* 원래 '심'은 '힘'의 사투리이다. '뒷심, 주먹심, 뱃심, 뚝심, 입심' 등은 모두 '힘'에서 유래했으나 표기는 '심'으로 한다.
-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여봐란듯이③(봐란듯이×, 여보란듯이×) 한번 살아봅시다.
* '여봐란듯이'는 '우쭐대고 자랑하듯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이를 '봐란듯이'(×)라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여봐란듯이'의 잘못된 말이다.
- 당첨되고 안 되고는 복불복(복골복×)인데, 한번 신청해 볼까?
* '복불복(福不福)'이란 '복분(福分: 복을 누리는 분수)의 좋고 좋지 않은 정도', 달리 말하면 '사람의 운수'를 의미한다.
- 그렇게 실없이 시시덕거리면(히히덕거리면×) 되겠니?
*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작은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는 '시시덕거리다', '시시덕대다'이고,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는 말은 '시시덕거리다', '시시덕대다'이다.
- 그래도 어디에서 주섬주섬④(주임주임×) 주워 들은(주서들은×) 것들은 있어 가지고…….
* '주섬주섬'은 '줍다'의 사투리인 '줍다'에서 나온 말이다.
- 나는 요즈음에 무르팍(무릌팍×)이 아파.
* '무릌'을 속되게 일컫는 말은 '무릌'에 접미사 '-악'이 붙는 '무르팍'이다.

① '십상'은 '순도 100%인 금불이'를 가리키는 '십성(十成)'에서 변한 명사로서 '아주 잘되었거나 알맞은 것'을 뜻하기도 하고, 부사로서 '꼭 맞게'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 • 이 둘은 주춧돌 감으로는 십상입니다.
• 이 그림은 이 방에 십상 어울린다.

② '성격이 아무지지도 못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을 뜻할 때는 '꺼병이'란 말을 쓴다.

③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보란 듯이'를 관용어로 규정하여 '남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자랑스럽거나 멋있게'라는 의미의 올바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봐란듯이', '보란 듯이'는 올바른 말이나 '봐란듯이'(×) / '여보란듯이'(×)는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면 된다.

④ '*주임주임'은 표준어인 '줍다'에서 나온 말인데도 이 말은 오히려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다.

확인 문제

9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10 국가직 7급

- ① 식구가 아주 단출하다.
- ② 친구에게 부춧돌을 전달하였다.
- ③ 잡자리에서 분시시 일어났다.
- ④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10 밑줄 친 말의 쓰임이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괜히 오만 사람 잡지 마라. 내가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
- ② 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긴가민가하기만 하다.
- ③ 난들 그 일을 알 수 있겠니?
- ④ 밤송이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다.

① O ② O ③ X ④ O

❶ 이제는 '자장면', '짜장면' 둘 다 올바른 표기로 인정한다.

❷ '식혜(食醴)'와 '식혜(食醴)'는 다른 음식이다. 여기서 '醴'는 '단것'을, '醴'는 '젓갈'을 뜻한다. '식혜'는 '쌀과 엿기름으로 만든 음식'이고 '식혜'는 '생선과 소금, 흰밥으로 만든 음식'으로 '생선젓'이라고도 한다.

❸ '개개다'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자꾸 맞달아 마찰이 일어나면서 표면이 닳거나 헤어지거나 벗어지거나 하다'는 말이다. 이를 '개개다'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말이다.

확인 문제

1 다음 중 정서법이 모두 옳은 것은? 2010 서울시 9급

- ① 칠흠-곶발-화투-가자미식혜-곰뱅이
- ② 끝발-곰뱅이-실낙원-텃새-시래기
- ③ 칠흠-돌뱅이-호두-고깃국-시나브로
- ④ 화토-호도-실낙원-고기국-두더지
- ⑤ 가자미식혜-텃새-씨래기-두더쥐

2 다음은 소설 '동백꽃'의 일부이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데 교양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잔아먹으려고 기를 북 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① 그렇잖아도 저하는 마음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②부치므로 일 상 ③급신거린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동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④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멀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① 그렇잖아도 ② 부치므로
- ③ 급신거린다 ④ 꾸어다

32 14

표기에 유의해야 할 단어류

(1) 음식 이름

올바른 표기(용어)	잘못된 표기(용어)	올바른 표기(용어)	잘못된 표기(용어)
계장 백반	계장 백반	뼈다귀 해장국	뼈다구 해장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설롱탕, 설농탕
콩보리밥	맨보리밥	수제비	수재비
낙지볶음	낙지볶음	아귀찜, 아귀탕	아구찜, 아구탕
떡볶이	떡볶기	오징어덮밥	오징어답밥
마늘종	마늘쫑	육개장	육계장
메밀국수	모밀국수	호두과자	호도과자

개장국 끓이는 방식으로 쇠고기를 넣고 끓였다 하여 '육개장'이라 하듯이 닭고기 넣고 끓인 것을 최근에는 '닭개장'이라 한다. 이를 '닭계장' (×)이라 써서는 안 된다.

(2) 비교하는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표기 T 1-2280-1

- 예) 교차로에서 함부로 끼어들기(끼어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
 - * '끼다'와 '들다'가 이어진 말로, 연결 어미는 '-어'이지 '-여'가 아님에 유의한다. 이를 [끼어들기], [끼어들기]로 발음하는데, 뒤의 [끼어들기]의 발음에 끌려서 '끼어들기'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 도리어(되례○, 도리어×, 되려×) 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 '오히려', '반대로', '차라리' 등의 뜻을 지닌 접속 부사는 '도리어', '되려'가 맞는 표기이다.
- 구태여(구태어×)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 * '일부러', '굳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는 '구태여'가 맞는 표기이다.
- '명란젓(명란젓×)'은 명태의 알로 '창난젓(창란젓×)'은 명태의 창자로 담근 것이다.
 - * '명란(明卵)'은 '卵(란)'의 독음에 따라 '명란+젓'이라 표기하고, '명태의 창자'는 '창난'이라 하므로 '창난+젓', 즉 '창난젓'이라 표기한다.
- (꽃)봉오리((꽃)봉우리×)-(산)봉우리((산)봉오리×)-(꽃)몽우리((꽃)몽오리×)

(3) 잘못 적기 쉬운 말

- 예) 그것을 가장자리(가상자리×, 가생이×)에 갖다 두어라.
 - *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장자리'가 표준어이다.
- 세 갈래의 갈림길(갈랫길×)에서 나는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 * '여러 갈래로 갈린 길',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갈림길'이 올바른 말이다.
- 너 이렇게 계속 개개기(개개기×)만 할거니?
-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거치적거릴(걸리적거릴○, 거추적거릴×) 것 없는 자유인이란 사실에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 *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걸리거나 달다'는 말은 '거치적거리다', '거치적대다', '걸리적거리다', '걸리적대다'이다.
- 오늘따라 왜 이리 어깨가 걸리지?(걸리지×)
 - * '숨을 크게 쉬거나 움직일 때 몸의 어떤 부분이 당기어서 뜨끔한 아픔을 느끼다.'는 말은 '걸리다'이다. '걸리다'(×)는 말은 '걸리다'의 방언이다
- 그는 결벽증(결백증×)이 있는 사람 같다.
 - * '청결결백'이라 사용하기는 하나 '결백증'(×)이라는 어휘는 없다.
- 과나리봇짐(개나리봇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먼 길을 떠났다.
 - * '과나리봇짐'은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작은 짐'을 뜻한다.
- 어머니는 고깃간(꾸죽간○, 육죽간×)에 가서 고기를 사 오셨다.
- 그 친구는 구레나룻(구렛나루×)이 아주 매력적이야.
 - *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은 '구레나룻'이라 해야 옳다. 왜냐하면 '나룻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라는 어구에서 보듯이 '수염'의 의미는 '나룻'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아랫사람에게 굽실거리는(굽신거리는x) 모습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다.
- 여기저기서 사람을 그러모아서①(굽어모아서x) 일을 할 때가 있다.
- 전 재산을 노름에 꼬라박은(꼬나박은x) 한심한 친구 같으니.
* '돈 따위를 헛되이 써 버리다', '거꾸로 내리박다'의 의미로 쓰이는 말은 '꼬라박다'이다.
- 저 사람은 사장의 꼭두각시(꼭독각시x)에 불과한 이야.
- 그렇게 피어(괴서x) 대니 넘어가지 않을 사람 있겠나?
- 시간이 꽤나(꽤나x) 걸리겠다.
* '꽤나'는 "심술궂나 부리겠다."처럼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다.
- 날파람둥이(날바람둥이x)는 '바람둥이'와는 다른 말이다.
* '날파람둥이'는 '주책없이 싸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 노란색②(노랑색x)을 띤 그 꽃은 무척 아름다웠다.
- 뇌졸중③(뇌졸중x)은 요즈음에 아주 흔한 증상이다.
- 너와 나는 생각하는 바가 똑같다. (꼭같다x)
- 뜨물④(뜨물x) 먹고 주정한다더니, 억지를 부리는 것이 딱 그 모습이로구나.
- 눈물만 떨어뜨리고(떨구고○, 떨치고x) 있었다.
- 나는 고교 시절에 멀리뛰기(넓이뛰기x)를 잘했다.
-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무동(舞童)⑤(무동x)을 태워 주셨던 생각이 난다.
- 이것이 철수의 발자국(발자욱x)이야.
- 벌레(버러지○, 벌거지x, 벌러지x)나 모기에 물려 생기는 질환이 있다.
- 얼굴에 난 뾰두라지(뾰루지○, 뾰두락지x, 뾰로지x)가 상당히 아팠다.
- 나는 그 말을 듣고 부아(부화x)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 '부아'는 '노엽거나 분한 마음' 의학에서는 '허파'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를 '*부화'라 써서는 안 된다.
- 나는 그 말을 듣고 웬지 기분이 섬뜩하였다(섬뜻하였다x).
-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섭하지x)
- 억지(억거지x)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그것을 여태(껏)⑥(입때(껏)○, 이제껏○, 여제(껏)x) 몰랐단 말이니?
- 오늘 밤, 우박이 쏟아지고 우레⑦(천둥○, 우뢰x)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 1-2281-1**
- 공급 장치 이음매(이음새x)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 '두 물체를 이은 자리나 부분'을 '이음매'라 하고, '물체를 이은 모양새'를 '이음새'라 한다.
- 임연수어(이연수x)는 쥐노래밧과의 바닷물고기이다.
- 나는 일에 지쳐서 초주검(초죽음x)이 된 상태였다.
* '두들겨 맞거나 병이 깊어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 또는 '피곤에 지쳐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은 '초(初)주검'이다. '초죽음'이란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 황석어젖⑧(황새기젖x)은 참조기로 담근 젖을 말한다.

(4) '~에~'와 '~의~' 유형의 어구

- 예) • 개밥에 도토리(개밥의 도토리x) - '죽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처지'를 두고 이르는 말
- 눈엣가시(눈의 가시x) - 몹시 밍거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
- 귀엣말(귀의 말x), 웃음엣소리(웃음의 소리x), 웃음엣짓(웃음의 짓x)
* '귀엣말'은 '귀에 대고 하는 말'을, '웃음엣소리'는 '웃노라고 하는 소리'를, '웃음엣짓'은 '웃노라고 하는 짓'을 가리키는 말이다.
- 만에 하나(만의 하나x) -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극단의 경우를 가정하여 이르는 말
- 옥에 티(옥의 티x) - 본바탕은 나무랄 데 없으나 아깝게 흠이 있음
- 별의별(별에별x) 일 -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 일
- 하늘의 별 따기(하늘에 별 따기x) -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발등의 불(발등에 불x)을 끄다 -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처리하여 해결하다.
- 천만의 말씀(천만에 말씀x) - '남의 칭찬이나 사례에 대하여 사양할 때 당혹감을 이르는 말'이거나 '남의 주장에 대하여 부정할 때 하는 말'

① '그러모아서'는 '흠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거두어 한곳에 모으다'는 말이다. 반면에 '굽어모으다'는 '어떤 물건을 굽어서 한데 모으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들이다'의 의미로 쓰인다. '굽어모으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쓸 수 없고, 사물을 거두어 모을 때는 '그러모으다'를, 사물을 굽어서 모을 때는 '굽어모으다'를 사용한다.

② '노란색-노랑', '빨간색-빨강', '파란색-파랑'처럼 쓰인다.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이라는 말은 없다.

③ 일종의 병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증(症)'이라고 생각하여 '뇌졸중'(x)이라 쓰나, 원래 이 병증(病症)은 한자어로서 '뇌졸중(腦卒中)'이 올바른 표기이다.

④ '뜨물'은 '곡식을 씻어 부엌에 된물'을 뜻하는 어휘이다.

⑤ 여기서 '무동을 태우다'는 '남의 어깨 위에 올라가 목뒤로 걸터 앉게 하다'는 의미가 된다.

⑥ '-껏'은 '지금껏, 아직껏'에서 보듯이 몇몇 명사나 부사에 붙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여태'의 뜻을 지닌 '여제'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여제껏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⑦ '우레'에 '우레'로 변천해 온 말인데, 한자어 '雨雷(우뢰)'에서 온 말로 착각하여 '우뢰'로 많이 써 왔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임을 분명히 하였다.

⑧ '조기'를 한자어로 '石首魚'라 하는데 이 말이 준 것이 '石魚'다. '조기' 가운데 '참조기'는 누런 빛을 많이 띤다 해서 한자어로 참조기가 '黃石魚'가 된 것이다.

확인 문제

3 밑줄 친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 조사 '의'와 '에'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 ① 그 시험에 붙기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
- ② 다 멋있는데 단추가 떨어진 것이 옥의 티이다.
- ③ 돈이 없으니 전열장의 구두가 그야말로 그림에 떡이다.
- ④ 오늘 한 일은 앞으로 할 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와 같다.

①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세움'이라는 뜻의 말이다.

② '가물'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어가고 있으나, '가물에 콩 나듯 한다.'에서 보듯 '가물'도 역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보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③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으로 주로 쓰는 말이다.

④ '뜨락'에는 '행복의 뜨락'처럼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있을 수 있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의미도 있다.

⑤ 꽃 이름으로 '복숭아꽃'과 '복사꽃'이 모두 표준어이듯이, 뽕 이름으로도 '복숭아뽕', '복사뽕' 모두 표준어이다.

⑥ '손자'는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을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⑦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하다.

⑧ '진작', '진작', '진작에'는 표준어이나 '진작에' (×)는 인정되지 않는다.

⑨ '기생'이나 '창녀' 등과 상관하고 주는 대가

확인 문제

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을 고르면? 2009 법원직

- ① 지난 여름에도 가물이 심하더니 올해도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야.
- ② 갓 태어난 솜팡아리 한 마리가 모이를 먹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 ③ 100년은 죽히 되어 보이는 빨간 벽돌담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퍼져 있었다.
- ④ 사람은 원어른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

①8

⑨ 생략된 말에 주의할 것

- 예) • 그는 한번 가고 감감무소식(감감소식○)이었다.
• 나는 그것을 불사르고(사르고○) 일어섰다.
• 술 안주(안주○)로는 오징어가 최고지.
• 당나귀/나귀, 닭의 장/닭장, 외면-치레/면-치레, ④ 송아-버섯/송이, 산-발/신

⑩ 기 타

- 예) • 저기 있는 가락엿(가래엿○) 좀 이리 가져오너라.
• 올해는 가물(가물○) ②이 들었다.
• 그것을 저 귀퉁머리(귀퉁배기○)에 두어라.
• 흔히 혜성(慧星)을 꼬리별(살별○)이라고도 한다.
• 날개(나래○)를 펼치고 새가 날고 있다.
• 그 일의 뒷갈망(뒷감당○)을 잘해라.
• 똥(뜨락○) ④ 안에 파랗게 잔디가 깔려 있었다.
• 한때 우리나라의 산아는 민동산(별거송이산○)이 많았다.
• 내 여자 친구는 보조개(불우물○)가 아주 매력적이다.
• 웬지 복사뽕 ⑤(복숭아뽕○)가 아프네요.
• 삼살개(삼사리○) 한 마리와 고양이가 있다.
• 개숫물(설거지물○)을 가지고 청소를 하였다.
• 제 손자(손주○) ⑥ 녀석입니다.
• 하는 행동이 왜 그리 어수룩하니(어리숙하니○) ⑦?
• 별들은 여왕별(장수별○)을 중심으로 무리를 형성한다.
• 그녀는 연방(연신○) 웃음을 짓고 있었다.
*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하는 어휘이다.
•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께서 옥수수(강냉이○) 엿을 해 주셨다.
• 너는 어려서 우지(올보○)였었다.
• 그 곳은 자물쇠(자물통○)로 꼭꼭 잠겨 있었다.
• 남의 중신(중매○) 잘못 들면 뽕이 석 대라더니.
• 나이가 어리다고 저렇게까지 철딱서니(철따구니○, 철딱지○, 철때기×)가 없더니.
• 살림이 촉나기(촉가기○) 전에 과다한 소비를 줄여라.
• 가는-허리/잔-허리,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관계-없다/상관-없다.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내리-글씨/세로-글씨,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다달-이/매-달, 댕-돌/뒹-돌/섬돌, 댕-장/겉-장, 뒹-말/뒹-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댕-전/댕-청, 댕-콩/호-콩, 댕-감/댕-거리
말-동무/말-벗,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모-내다/모-심다, 모쪼록/아무쪼록
목화-씨/면화-씨, 무심-결/무심-중, 물-심부름/물-시중, 밑-층/아래-층
변덕-스럽다/변덕-맞다, 생/새양/생강, 서방-질/화냥-질, 수수-강/수숫-대, 시늉-말/흉내-말
실제로/실지로, 씹쓰레-하다/씹쓰름-하다, 아귀-세다/아귀-차다, 아래-위/위-아래
애-같이/애벌-같이,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제/어저께, 옛-가락/옛-가래, 외손-잡이/한손-잡이
올러-대다/올러-메다, 의심-스럽다/의심-찍다, 일찌감치/일찌거니, 입찬-말/입찬-소리
자리-웃/잠-웃, 재롱-떨다/재롱-부리다, 제-각기/제-가끔, 진즉/진작, ② 차차/차츰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 침-놓다/침-주다, 한턱-내다/한턱-하다, 해웃-값/해웃-돈 ⑨
혼자-되다/홀로-되다, 흠-가다/흠-나다/흠-지다.

❖ *진작에'가 표준어가 아니듯이 *이제서야, *그제서야, *애시당초(에)' 역시 '이제야, 그제야, 애초(에)/애당초(에)'의 잘못된 말이다.